

익산성모병원

전북 익산시 동서로 309
대표전화 : 063-841-0714



익산성모병원의 기본 이념은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병원으로서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병원, 전문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로서 신뢰받는 병원,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을 나누는 병원으로서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두고, 환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신뢰와 상생으로 직원 상호간에도 더욱 행복해지는 병원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익산성모병원은 1970년대 구라 사업에 불모지였던 전북권에 한 켄 씨 환자들의 정착마음이 생기면서 관심을 가진 가톨릭 전주 교구가 한 켄 씨 환자들을 돌봄을 계기로 예수 수도회를 초청하면서 1972년 6월에 성모의원을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44년이라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초대 병원장으로 송윤희(크리스티나) 수녀와 수도가족, 대한 나 관리 협회 나병 연구원장

이셨던 고영훈(베드로) 박사와 지역의료인과 함께 가난과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하는 가톨릭 의료 이념과 예수 수도회 창설자 메리 워드의 정신에 따라 이 시대에 가장 소외당하는 이들과의 나눔에 동참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 30년은 한 켄 씨 병의 치유와 빈곤 퇴치를 위해 온전히 힘썼고, 1996년 10월부터는 노인 돌봄의 집인 주간 보호센터를 시작하여 가난한 지역 노인들의 쉼 자리가 되어 주었고, 2003년에는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사목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상생은 오늘의 불가피한 현실이 되어 성모의원이 노인 요양 병원인 익산성모병원으로 104병상에 이르는 규모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 노인 장기요양 제도가 생기면서 2011년 10월 29병상의 성모 노인 요양원이 설립되어 의료와 장기요양의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병원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병원 환자와 지역사회에 더욱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고 직원 상호 간에도 우애와 단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5일은 노인 요양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인 해바라기 병동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2005년, 2007년, 2011년에 걸쳐 지속적해서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교육을 (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와 공동주관으로 열고 봉사자들의 역량을 갖추는 데 지속적인 교육을 한 결과 22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20명의 봉사자와 함께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준비된 병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호스피스심화교육을 열어 봉사자의 질적 수준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바라기 병동 현황은 10병상(여: 2인실 1, 3인실 1, 남: 2인실 1, 3인실 1) 과 임종실인 민들레 방 1실로 되어있고 상담실, 가족실, 목욕실, 기도실, 가족휴게실이 있으며 호스피스 팀 구성으로 의사 1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1명, 원목자 각 1명(사제, 목사, 스님), 영양사 1명,

자원봉사자 20명이 함께 하며 주 1회 다학제 간에 팀 모임을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더욱 더 적절한 케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면도 많지만, 미술, 원예, 음악치료와 아로마 마사지를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시키며 가족의 소진도 돌보아 드리고, 그 외에도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목욕, 이·미용, 산책, 대화, 기도, 성서 읽어드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분의 환자가 오셨고 16분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평균재원 기간은 짧지만, 이곳에서 보내시는 동안에 환자와 보호자가 마음 편히 지내시다 가시는 공간이 된다는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셔서 더욱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별 이후에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문상하고, 1달 후 사랑의 편지 띄워드리기, 6개월마다 사별 가족모임을 함으로서 의미 있는 지속적 관리로 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익산성모병원은 노인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삶과 죽음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돌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귀한 생명의 존엄성과 온전함을 되찾아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데,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